

하상 주보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주임신부: 배하정 다니엘
사도회장: 안민철 미카엘
연령회장: 홍익훈 요셉
(703-966-8206)
사무실: 703-968-3010
팩스: 703-968-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미사안내 (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 (교중미사) * 2:00 PM (학생미사) * 5:00 PM (청년미사)		
토요일저녁 주일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 5,5) 희망의 순례자들

알링턴 교구 주교님 성탄 메세지



DIocese of ARLINGTON

Office of the Bishop

200 North Glebe Road, Suite 914 • Arlington, Virginia 22203 • Office (703) 841-2511 • Fax (703) 524-5028

Christmas 2025

Dea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Christmas shines as a season of joy, unity, and renewed hope. The Child of Bethlehem comes to draw us together as one family of faith, bridging every distance and healing every division. His radiant light pierces the darkness reminding us that in Christ love triumphs and peace endures.

As we gather once more around the manger of Bethlehem, our hearts are filled with awe and gratitude for the gift of God's love made visible in Jesus Christ. At Christmas, we rejoice in the wondrous mystery of the Incarnation—God made man, dwelling among us to share our humanity, joys, and sorrows. In Him, heaven and earth are united, and through Him, we are reconciled to our Creator. The birth of our Savior reveals that God's love knows no boundaries.

I invite you to celebrate this holy season with renewed thanks for the gift of one another. May we follow the example of the Holy Family, who in faith and love welcomed the will of God with trust and serenity.

May the joy of this Christmas strengthen the bonds of unity among us and may the peace of Christ reign in your hearts and homes.

Sincerely in Christ,

Michael F. Burbidge

Most Reverend Michael F. Burbidge
Bishop of Arlington



알링턴 교구 주교님 성탄 메시지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성탄은 기쁨과 일치, 그리고 새 희망의 계절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하나의 가족으로 부르시며, 모든 거리와 상처, 분열을 치유하십니다. 그분의 찬란한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고,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승리하며 평화가 지속됨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다시 베들레헴의 구유 앞에 모일 때,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느님 사랑의 선물을 경의와 감사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성탄은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머무시며, 우리의 인간적 기쁨과 슬픔을 나누신 놀라운 강생의 신비를 기뻐하는 때입니다. 그 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고,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창조주 하느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우리 구세주의 탄생은 하느님 사랑에 한계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이 거룩한 계절에 여러분이 서로의 존재를 선물로 받아들이고 새롭게 감사하며 성탄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초대합니다.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신뢰와 평온으로 받아들이신 성가정의 모범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의 일치를 더욱 굳건히 하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풍성히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알링턴 교구장 마이클 버비지 주교

복음묵상의 향기 '말씀' 헌신과 애정의 가정

한 가정의 행복은 하느님의 선물이므로 가정의 일원들에게 헌신과 애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행복은 서로를 사랑으로 감싸줄때 충만해집니다. 모든 이의 공동선을 위한 헌신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아기와 그 어머니의 목숨을 살리고자 전적으로 자신을 희생한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동방 박사들에게서 메시아의 탄생 이야기를 들은 헤로데 임금은 베들레헴과 그 인근의 두 살 이하 사내아이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위험이 닥쳐오자 주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 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은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서둘러 피신합니다. 부리나케 떠나면서 그동안 공들여 쌓은 성과와 집과 친구들을 모두 버립니다. 그의 행복은 아기와 그 어머니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헤로데의 아들이 다스리는 유다로 들어가지 않고 갈릴래아의 작은 고을, 나자렛으로 갑니다.

요셉의 태도는 하느님의 부성에 대한 반영과 동참을 나타냅니다. 하느님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참으로 걱정하시고 천사를 보내시어 요셉에게 해야 할 일을 일러 주십니다. 요셉의 배려는 하느님의 배려를 가리킵니다. 하느님에게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나오고 요셉의 가정은 그분의 인도를 받습니다. 가정에서 애정이 이기적으로 변하면 나쁜 감정과 관계 때문에 불목이 가정을 지배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요셉이 아기와 그 어머니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가장 힘없는 이들, 가장 작은 이들, 가장 소홀히 한 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안봉환 스테파노 신부

[금주의 교리 상식] 성가정 축일이란?

성가정축일은 예수, 마리아, 요셉이 함께한 나자렛의 성가정을 기념하는 천주교 전례력의 축일로, 12월 마지막 주일(주일이면 12월 30일)에 지냅니다. 이 축일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 공동체의 본보기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한국 천주교에서는 성가정 축일부터 7일간 '가정 성화주간'을 지내며, 가족의 화목과 신앙의 모범을 강조합니다. 성가정의 삶은 삼위일체의 사랑과 조화를 본받는 데서 비롯됩니다.

성가정축일은 가정의 본질을 되새기고, 사랑과 신뢰로 하나 되는 가족의 가치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공지사항

1. 성가정 축일 모임 안내

- 12월 28일 (일)
 - 루가회 월례회의 (오전 11시 30분)
 - 요한회 월례회의 (오전 11시 30분)
 - 학생 전례부, 성가대 감사 디너 (오후 3시)
 - 예수님과 함께 하는 송년 행사 (저녁 6시)
- 12월 30일 (화)
 - 송년 미사와 기도, 찬양 (저녁 7시 30분)
- 12월 31일 (수)
 - 성탄 팔일 축제 제7일 미사(오전 11시)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저녁 7시 30분)
- 1월 1일 (목)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오전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
- 1월 2일 (금)
 - 봉성체 (오전 9시)
 - 십자가의 길 (저녁 6시 50분)
- 1월 3일 (토)
 -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 (저녁 10시 30분)
(새벽 미사 없습니다.)

2. 주일학교 CCD 첫 영성체반 등록 안내

- 2026년 첫 영성체반 등록을 받습니다.
- 대상 : 3학년 이상 주일학교에 등록된 학생
- 등록 : 1월 11일 (일)까지
2시 미사 후 하상관 교무실
- 교리 시간 : 2026년 1월 21일 (수) 저녁 7시
(매주 수요일 저녁 7시-8시 30분)
- 문의 : 임형준 이레네오 교감 703-624-8196

3. 학생 전례부, 성가대 감사 디너

- 일시 : 12월 28일(일) 오후 3시
- 학생 미사에서 봉사하며 수고한 학생 전례부와 성가대,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위한 감사의 디너가 있습니다.

4. 2025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송년 행사

- 일시 : 12월 28일(일) 오후 6시
- 참가신청 : 오늘 오전까지 미사 후 성당 로비에서 접수 받습니다.

로고스 청년회 연말 파티



지난 12월 20일 로고스 청년회의 연말 파티가 있었습니다. 한해 동안 함께 웃고 기도하며 친하게 지내온 19명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목하고 선물 교환을 통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 1월 봉성체 안내

- 일시 : 1월 2일 (금), 1월 9일 (금) 오전 9시부터
- 신청 : 정문기 윌리엄 (703-598-3316)

6. 주일학교 CCD 성탄제 (Christmas Open Festival)

- 일시 : 1월 11일 (일) 10시 미사 후
- 장소 : 친교실
- 본당 주일학교 CCD 학생들이 준비한 성탄 축제 공연 (연극, 노래, 춤)에 교우분들을 초대합니다.

7. 33일 봉헌자 후속 모임 / 파티마 신년 미사 및 모임

- 일시 : 1월 17일 (토) 저녁 7:30 미사 봉헌후
- 장소 : 친교실
- 33일 봉헌을 하시지 않았더라도 성모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이종석 루가 (703-254-7963)

8. 어버이 성서 모임 신약 성서 사십 주간

- 2026년 1월 21일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신약 성서 사십주년을 함께 하실 분 모집합니다.
- 일시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목요일 저녁 8시
- 신청 마감 : 2026년 1월 11일
- 문의 : 오재노 로사 703-772-7275



9. March for Life (생명 수호 행진)

- 일시 : 1월 23일(금) 오전 11시 미사 후
오후 12시 성당 출발 (점심 제공)
- 참가 신청 : 1월 18일(일)까지 친교실 (선착순55명)
- 문의 : 한상준 프란체스코 703-439-8992

10. 2025년 교무금 납부 안내

- 세금 정산서 발급 관계로 2025년 교무금 납부를
오늘까지 마감합니다.
- 교무금을 정산하실 교우분들께서는 날짜를 꼭 지
켜주세요. 올해가 가기 전에 약정하신 교무금을 봉
헌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1. 송년 미사와 기도, 찬양의 시간

- 일시 : 12월 30일 (화) 저녁 7시 30분
- 주님과 함께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미사와 성체강
복, 찬양의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동안 송년 모
임을 하면서 서로 친교를 나누었다면 송년 미사와
기도, 찬양의 시간을 통해 영적으로 마무리하고 시
작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2.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안내

- 일시 : 12월 31일 (수) 저녁 7시 30분
1월 1일 (목) 오전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

13. 필사 노트 찾아가세요!

-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서한 필사 노트 전시를 마쳤
습니다. 필사에 함께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노트를 제출하신 분들께서는 사무실에 오셔서 찾
아가시면 됩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 2026년 본당 달력 배부

- 2026년 새해 달력이 드디어 왔습니다.
- 각 구역장님께서는 12월 28일(일)까지 사무실에
오셔서 달력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못 받으신 분들께서는 2026년 1월 4일(일)부터 개별
적으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 가정당 1개씩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헝가리-오스트리아-체코-폴란드 성지순례

- 기간 : 2026년 5월 4일(월) ~ 5월 15일(금)
(총 11박 12일)
- 비용 : 일인당 US \$3,800
- 접수마감 : 2026년 1월 25일(일)까지
- 인원 : 선착순 30명
※ 하루 4km 정도 걷는데 무리가 없어야 합니다.
- 접수 : 김정숙 올리안나 443-540-4680
jkdolce@gmail.com

16. 2026년도 본당 봉사자

우리 성당을 위해 봉사하실 23대 본당 봉사자를 소개합
니다.

- 회장 : 허진 (세바스찬)
- 총무부장 : 김기정 (미카엘)
- 운영부장 : 최영준 (라파엘)
- 구역부장 : 배성훈 (디모테오)
- 단체부장 : 송정환 (분도)
- 전례부장 : 이규철 (베드로)
- 성모회장 : 서민수 (안젤라)
- 청소년부장 : 이성근 (예레미야)
- 23대 본당 봉사단 자문 위원 : 황원균 알렉산더
김동표 로무알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2025년 12월 21일 (대림 제 4주일)	
봉헌금 -----	\$9,946.00
교무금 -----	\$30,070.00
교무금 (신용카드) -----	\$13,400.00
감사 헌금 -----	\$300.00
온라인 봉헌 -----	\$10,140.00
합계 -----	\$63,856.00

KACM TV 하이라이트

성 정바로로 성당 제공	Cox ch 30, 830 Fios ch 30
2026년 1월 1일(목) 오후 5시 - 6시	
2026년 1월 2일(금) 저녁 8시 - 9시	
2026년 1월 4일(일) 오전 6시 - 7시	
1. 주일미사강론	
2. 가톨릭 뉴스	
3. 영상교리: 성모 마리아	
4. 네번째 동방박사 '알타반'	
5. 요셉의 역할과 동방박사의 방문	

교중미사 예물봉헌

12/28 이번주	비엔나 2
01/04 다음주	스프링필드

Find a Mass near me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

휴가 중에도 주일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